



일 굴

바르고 勤勉한 민주 국민을 指標로 삼아 慶北교육을 리-드하는 경북도 학무국장 李英鎭씨———.

예로부터 “교육”하면 安東의 도산 서원등 경상북도를 연상하리만큼 인식되어온 경북이기에 李英鎭 학무국장은 오늘도 쉼 사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학 졸업후 효성여중 교사로 첫출발을 한 이래 줄곧 30여년간을 교육계에 몸담아온 李國장은 한평생을 교육계에 바친 교육자답게 인간성 또한 소탈하고 꾸밈이 없어 보였다. 더구나 대범한 성격이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을 원만하게 다스리면서 원칙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는 大命題아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고 同席한 金相煜사체계장이 살짝 귀뜸해 준다.

그러나 원칙결정시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아래 결정을 내리시기때문에 한가닥의 착오도 있을 수 없다는 세심한 면도 가지고 계시는 李國장이시기도 하단다. 年 2 회 의 학생검번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李英鎭

『체언을 불요할 정도로 아주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첫째 건강함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커가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86,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기생충 감염율이 높다고 할때, 많은 외국손님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유쾌하게 먹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치지요.

항간에 年 1 회 의 검사운운도 있지만 재감염의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는 탓이지요. 꾸준한 감염율저하를 이룩하려면 집단으로 2회검사가 절대적입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李國장의 모습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남다른 열의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 기자의 마음을 또한 흐뭇하게 해준다.

『한가지 蛇足を 달자면 중고등학생들은 검사수수료를 학교가 부담하고 있고 국민학교는 교육청이 부담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건비가

너덕해서 재정의 압박을 안받고 검사를 했으면 하는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75년도에 학생 기생충감염율이 50.1%였던것이 꾸준한 년 2회 검사결과 84년도엔 5.4%로 저하되었고 85년 춘계 검사시에는 3.4%로 현저한 감염율의 저하를 보여서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무척 보람을 느낀다고 자부하기도———.

경북의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건강 체크를 해보시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

『마땅히 건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건협에서 간염검사와 심장질환검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건강검사를 계몽하고 홍보하면 학생들이 자부담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명이상의 검사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 검사차량을 요청해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은 어렸을 때 틀이 잡혀야 하는데 체력장들을 해보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을 모르고 뛰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등이 허다했습니다.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이만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李英鎭국장이 있기에 경북교육의 장래가 더욱 더 창창하다는것을 느꼈다.

경북도 교육위원회의 특색있는 보건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각급학교의 유훬교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하자는 취지아래 모두 양호실로 바꾸어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전학교에 기자재 예산도 확보해서 구비토록 해서 명실공히 내실있는 양호실 꾸미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각종 병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는 기협에서 결핵검사는 결협에서, 혈액형검사 뇨검사등은 학교보건협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셋째, 양호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가을 철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뭐니뭐니해도 학생들건강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양호교사가 필요하거든요.

넷째, 우리도에서는 급식학교를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좋은 성과를 얻자 타시도에서는 견학을 와서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하고 있나를 알아보기도 하지요. 이미 7월달에도 3개시도에서 견학을 하고 돌아갔지요 하하”———』

호뭇하게 웃으시는 李국장의 모습에서 과연 경북의 보건시책은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이 든다.

경북의 자랑거리라도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일반적으로 경북 체육이 침체된 감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대통령기 통일역전마라톤대회」에서 경북이 (83,84) 2년에 걸쳐 2연패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시도가 참가하는 대회로서 전주, 광주, 순천, 진주, 마산, 부산, 대구, 천안을 거쳐 서울에 끝나는 코스로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중의 하나입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李國장의 말씀에서 기자는 스포츠에도 유달리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속으로 느낄 수 있었다.

李英鎭國장님의 평생을 살아오신 左右銘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_____

『30여년을 교육계에서 지나온 동안 나는 이런 信念으로 살아왔습니다.

첫째, 건강을 갖춰라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것이 계획만있고 실천이 되지를 못합니다. 건강이 제일이지요 둘째 성실성과 정직성입니다. 인간이 진실되지 못하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德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실과 정직이야말로 인간형성과정에서

李國장은 맺음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잊지 않았다.

『첫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야 공부도 잘 하고 취미도 가질 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사체계장 金相燾씨는 특히 보건관리에 정열을 기울이는 일잘하는 사람이지요』

부하 사랑하는 마음이 이쯤에 이르르면 더 말해서 무엇하랴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기초적인것이라고 봐요.

셋째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인간성에 근면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위에 인생을 영위한다면 그 인간은 모든 면에서 남의 존경을 받고 생을 영위하는데 모범이 될것입니다. 나의 일생은 이런 신조밑에 살아왔고 이런 一念 밑에 교육자로서 임해 왔습니다.』

◎……李英鎭國장은 경북대 사대와 흥익대학 교수를 역임, 인동고등학교, 선산여중교 교장을 거쳐 달성군 교육청 교육장등 요직을 두루 거친후 83년3월 현 경북교육위원회 학무국장으로 취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취미는 바둑과 독서, 부인 郭貞奎여사와의 사이에 2男3女.